

정치검찰의 악습 못 버린 한동훈 의원
국민을 속인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정치검찰의 악습을 못 버렸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수사 자료를 연일 조금씩 공개하며, 그때마다 악의적인 편집·가공을 더하는 방식으로 왜곡과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이런 행태가 바로 검찰의 조작기소 수법 아닙니까?

정치검찰의 악랄한 관행, 한동훈 의원의 전문분야입니다.

저희 법사위원들은 정치검찰의 이런 발췌·왜곡·편집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첫째, ‘핵심 내용 삭제하기’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공익 민원 전달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SNS에 녹취록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다”, “왜 딜레이가 되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 그랬다”는 내용은 왜 남몰래 삭제했습니까? 이 내용까지 올리면 부정한 청탁이었다는 주장을 못 하니 대화를 조작한 것 아닙니까? 핵심 문장만 골라 지운 치졸한 수법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수사한 부장검사도 불기소 결정서에서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절대 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둘째, ‘다른 내용 짜깁기하기’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수수료 관련 이야기와 전환사채 관련 이야기, 김

승원 후보자 관련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짜깁기해 배치했습니다. 중간 내용은 삭제하고, 시간 순서를 뒤섞었습니다. 마치 김승원 후보자의 ‘도움’이 ‘전환사채’ 및 ‘수수료’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환사채와 김승원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은 “강씨와 양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 보더라도”,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거나”, “양씨가 위 약속을 근거로 강씨에게 전환사채를 인수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꼼꼼히 살펴도 찾지 못한 관계를, 대화를 짜깁기해 창작해낸 겁니다.

셋째, “관계없는 내용 부풀리기”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SNS에 게시하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김승원 후보자가 없는 곳에서 이뤄진 대화이거나, 김승원 후보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제넌셀 관련 언론보도 등입니다.

이렇게 주변적인 내용만 반복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 금전적 대가를 약속 또는 요구하거나, 식약처에 특혜를 봐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자료 어디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지 못하니,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짜깁기해서라도 후보자를 흠집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과 법원도 부정한 특혜나 청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한동훈 의원은 양 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듯 늘어놓은 내용을 절대적 진실인 양 부풀리고 있습니다. 후배 검사들도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편집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자르고 붙였는

지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하십시오.

둘째, 자료를 조작해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십시오.

셋째, 수사 자료를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수집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몇십 년간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의원이기에, 조작과 짜깁기로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이 더욱 무책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유출한 경위를 비롯해 한동훈 의원이 왜곡·선동한 내용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을 속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6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